

大學입시 제도 效率性和 自律化的 혼수상태 깨어나야

성기수(KIST 시스템 공학센터 소장)
전자신문 89.11.17 『論壇』

지난 수십년의 韓國을 돌아볼 때 隔世之感을 금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보면서 또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제도인 것 같다.

日本 식민통치하에서 비롯된 일본 총독부의 강력한 교육지배는 해방후 경제체제의 민주화가 遲遲不進한 가운데 관료와 역대 독재정권의 지배하에 고스란히 이어져서 정권 안보차원과 발전을 希求하는 국민여론 사이에서 땀질식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 교육기관의 타율적이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라는 기본적 구조는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느렸는가는 일본식 교복과 삭발제도를 벗어던지는데 무려 35년이란 日政통치 기간과 맞먹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잘못된 교육제도의 병폐는 엄청난 국력낭비를 초래하면서 치맛바람, 고득점 재수생, 삼수생, 눈치작전 등 신종단어 症候群을 낳고 있다. 重症임을 나타내는 증세는 이밖에도 많다.

경제형편이 좀 나아져서 고층건물들이 잘도 올라가는데 대학이라는 간판만 달면 빈곤을 연상케 한다. 우선 식당과 연구시설이 先進名門과 너무도 격차가 난다. 사립대학의 총장 취임까지 행정부가 승인해야 하니 백년 앞을 보며 인재를 양성하고 대자연과 인류사회의 진실을 추구하는 대학이 4년 앞밖에 못보는 정치인들의 단견과 이해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학과신설을 스스로 할 수 없고, 등록금·기부금·학생선발을 스스로의 권위로, 유기적으로 關聯 운영할 수 없고, 모든 학과의 정원 통제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 타율의 極端은 죽음을 앞둔 식물인간인데 오늘의 우리 대학은 가히 「식물대학」이다. 유감스럽게도 식물연구소, 식물은행, 식물기업 등 타율의 병폐는 광범하다.

그 결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잘 써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1인당 수출이 지금 대

만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의 잠재력은 코끼리같이 이상 비대한 정부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교육만을 놓고 볼 때 오늘의 상황은 심각하고 그 여파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이다. 그런데도 교육제도에 지엽적인 손질이 가해지고 있을 뿐, 장기적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재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그 일례가 대학입시에서의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권인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학은 하나, 학과는 1,2,3 지망을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은 대만의 학과를 쓰고 대학을 1,2,3,4,5, ... 16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정부주도형 타율에 의한 大入制度이지만, 접수마감시간의 대혼란, 담을 넘거나 유리를 깨고, 즉 폭력을 쓰는 학생은 접수되는 현상, 고득점 재수생이라는 세계에서 도 진기한 교육모순, 무엇보다도 적재적소가 무시당하는 극심한 눈치작전, 이 엄청난 사회병리 현상이 한쪽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장되고 있고, 다른 한쪽 대만의 제도하에서는 아예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대입제도에서 또 하나 웃음거리는 고교성적의 획일적인 내신점수제와 그 강제적 반영이다. 고1·고2 때 심신단련과 역사·문학·음악 등에 심취하다가 고3 때 학업에 전념하여 졸업 무렵에는 전교수석을 닦는 모범적인 한 젊은이가 있다고 할 때, 그의 현행제도에 의한 내신 성적은 5등급 내지 6등급이 될 것이고 한점이 다급한 대입경쟁에서 7 ~ 8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등급으로만 표시된 내신성적은 수학을 잘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전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3년간의 전과목 성적·생활기록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대입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당연히 각 대학에 맡겨서 대학마다, 학과마다, 전통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획일적으로 묶여 버린 한국의 대학들은 식물인간처럼 더 나빠질 자유도 없고,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할 자유도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의 건국전 1백년과 건국후 2백년 동안 문교부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 기간이 미국의 국력이 가장 활기있게 신장한 기간이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카터 행정부 때 문교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국력은 이 무렵부터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대만식 효율성과 미국식 완전자율성의 어느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직 식물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다.